

# 평가원 기반 3월간지 정답 및 해설지

이지영이 님의 진성어기

수능연계파트

1번 Spatial **reference points**, such as landmarks and other identifiable markers, are essential in our perception and navigation of the world around us. These points of reference serve as mental anchor points that our brains use to create a sense of direction and space.

(B) However, **the influence of reference points** extends beyond navigation and can affect our judgments of distance and spatial relationships. Research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presence of a landmark can cause **an asymmetry in distance estimates**.

(A) In one study, participants were asked to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two locations**, one of which was a landmark and the other an ordinary lo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distances **from ordinary locations to landmarks** were consistently judged as **shorter than distances from landmarks to ordinary locations**, even when **the actual distances were the same**.

(C) **This asymmetry in distance estimates** violat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which states that th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should be the same regardless of the direction of travel.

공간적인 참조 지점은 랜드마크와 다른 식별 가능한 표시물과 같은 것들로, 우리가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참조 지점은 우리 뇌가 방향과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인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참조 지점의 영향은 탐색을 넘어서 거리와 공간 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서는 랜드마크의 존재가 거리 추정에서 비대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랜드마크와 일반적인 위치 두 곳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위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가 동일하더라도 일반적인 위치에서 랜드마크로의 거리보다 짧게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은 이동 방향과 관계없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유클리드 거리의 기본 원칙을 위배합니다.

2번 **Diaries** were a means of recording daily experiences, thoughts, and emotions, **allowing individual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nd their place in the world**.

(C) **The personal and private nature of diaries** allowed individuals to make themselves public to themselves, as Habermas has noted, creating **an object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que**. By reflecting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emotions, individuals could develop **a greater awareness of their own subjectivity**, leading to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self.

(A) **In this way**, the diary served as a tool **for cultivating self-knowledge**, an essential component of a modern, enlightened subjectivity. **However**, the role of the diary was **not limited to the individual**.

(B) Diaries **also played a broader social and cultural role**, serving as a means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personal and historical narratives. The diaries of famous figures such as Virginia Woolf, Anne Frank, and Samuel Pepy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ir lives and times, while also serving as literary works in their own right.

일기는 일상적인 경험, 생각 및 감정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자신의 위치와 함께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기의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인 성격은 하버마스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 검토와 자기 비판을 위한 대상을 만들어주어 개인이 스스로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반성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주관성에 대한 더 큰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어 자아의 더욱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기는 자기 인식을 계발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현대의 계몽적인 주체성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기의 역할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기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및 문화적 역할을 하며, 개인 및 역사적 사건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앤 프랭크, 사무엘 페프스와 같은 유명 인물들의 일기는 그들의 삶과 시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문학 작품으로서 작용했습니다.

3번 **Sports journalism** occupies a **paradoxical position** within the media landscape, being both widely read and undervalued. Despite the enormous popularity of sports and the significant cultural influence of sports journalism, it is often viewed as a "lesser" form of journalism, lacking the intellectual rigor and social significance of "serious" news.

(A) **However, this view of sports journalism** is deeply flawed. **Sports journalists** must possess **a deep knowledge of the sports they cover, as well as the ability to engage audiences** with their storytelling and analysis.

(C) **They** must be able to capture the excitement and drama of live events, while also providing insightful commentary that goes beyond mere scorekeeping.

(B) **Moreover, sports journalism plays a vital role in shaping the cultural narratives that define our society.** Sports stories are often imbued with symbolic meaning, reflecting broade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By covering sports with depth and nuance, sports journalists can provide readers with a unique perspective on the human experience, and can help to shed light on the complex issues that shape our lives.

스포츠 저널리즘은 미디어 랜드스케이프에서 상반된 위치에 있으며, 널리 읽히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의 엄청난 인기와 스포츠 저널리즘의 중요한 문화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진지한" 뉴스의 지적 엄격성과 사회적 의미 부족으로 인해 저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저널리즘의 인식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보도하는 스포츠의 깊은 지식과 이야기와 분석을 통해 청중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생생한 이벤트의 흥분과 드라마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점수표기를 넘어선 명쾌한 코멘트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 저널리즘은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문화적 서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이야기는 종종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추세를 반영합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깊이와 섬세함으로 스포츠를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인간 경험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번 While **the pursuit of precision** is a **fundamental aspect of scientific inquiry**, the same **cannot be said for historical representation.**

(C) **In contrast to the scientific method**, which seeks to arrive at a single, objective truth, the study of history is characterized by **a multiplicity of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Historical insight requires **a willingness to question established beliefs and to consider alternative points of view.**

(B) Rather than aiming for determinacy and precision, historians seek to **uncover the complexity and nuance of historical events and narratives.** This involves **a constant process of reassessment and reinterpretation**, as new evidence and perspectives come to light.

(A) **The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is **therefore** a necessary aspect of historical inquiry, as it allows for a deeper and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past. Rather than seeking a single, definitive truth, historians must be open to the possibility of multiple truths, each offering a unique perspective on the complexities of history.

과학적 탐구의 핵심적인 측면이 정확성 추구에 비해, 역사적 표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이 단일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하려고 하는 데 비해, 역사학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역사적 통찰력은 정형화된 믿음에 대한 의심과 대안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사 이벤트 및 서사의 복잡성과 섬세함을 발견하기 위해, 역사학자들은 결정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과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와 시각이 나타날 때, 지속적인 재평가와 재해석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다양성은 과거를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조사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하나의 결정적인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복잡성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다양한 진실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5번 Whil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real and fictional worlds are evident, **the fictional world is distinct from the real world** in one crucial aspect: **its level of organization**. In the real world, events and details unfold chaotically, forming an infinite chaos of information that is only shaped and ordered by the human mind. **However, in literature**, the world presented to the reader is **already processed and filtered by the author's own consciousness**. The author **selects and organizes the content according to their worldview**, shaping the story's events and characters to convey a particular message or perspective. As a result, the reader's experience of the fictional world ③ **is mediated by the author's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reality**. While the author may strive for objectivity, their own biases and preconceptions inevitably shape the story they tell.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story is thus colored by the author's perspective, which stands between them and the raw, unfiltered reality upon which the story is based.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의 유사성은 명백하지만, 핵심적인 측면에서 허구 세계는 현실 세계와 구별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건과 세부 사항은 무질서하게 전개되어, 인간의 마음에 의해만 구성 및 정렬되는 정보의 무한한 혼돈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독자에게 제시되는 세계는 이미 작가의 의식에 의해 처리되고 걸러져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특정한 메시지나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의 사건과 인물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독자의 허구 세계 경험은 작가의 주관적인 현실 해석에 의해 중재됩니다. 작가는 객관성을 추구할지라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은 불가피하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독자의 이야기 이해는 작가의 시각에 의해 색칠되며, 이는 독자와 이야기가 기반한 원시적이고 필터링되지 않은 현실 사이에 위치한 작가의 시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유주제파트

6번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and Kantian ethics share **a common interest in the concept of freedom**. According to SDT, freedom from contingencies is achieved when individuals adopt moral norms that are intrinsically motivated. This idea aligns with Kantian-based ethics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reedom from external influences in moral decision-making. **However**,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norms that are integrated through this intrinsically motivated process are tailored to the individual or universal. If the former is true, then SDT would be far from Kantian morality, which focuses on universal moral norms. Despite differences in inherent tendencies among individuals, there is evidence to suggest that psychological needs exist cross-culturally, implying that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is universal**. Thi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tent of morality may exhibit some basic, universal attributes. Whil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how individuals prioritize and integrate these universal attributes, the underlying principles may still hold true.

① SDT and Kantian ethics share a common interest in freedom and universal principles of morality.

자기결정이론(SDT)과 칸트적 윤리학은 자유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DT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도덕적 규범을 채택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도덕적 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필요성을 강조하는 칸트적 윤리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 통합되는 규범이 개인적으로 맞춤화된 것인지 혹은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자의 경우, 보편적 도덕 규범에 중점을 둔 칸트적 윤리학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개인 간에 내재적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심리적 요구사항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임이 밝혀져, 내재화 과정 자체는 보편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의 내용은 기본적인 보편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인이 이러한 보편적 속성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합하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 Philosopher Tonja van den Ende argues in “In Search of the Body in the Cave” that **the image of the body goes beyond the photograph in a person's passpor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tate, this photograph carries **significant meaning about citizenship and representation**, making the body a system of signs that can indicate national identit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passports did not have photographs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ighlighting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ontemporary times, the photograph** in a passport and the possession of the document itself can become **representations of the State**, whether the individual carrying it intends it or not. As a person crosses international borders, the passport and its photograph work in tandem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 **Paradoxically**, while the passport can grant international **freedom**, it can **also restrict one's movement** within arbitrarily set boundaries.

④ **Passports grant freedom and restrict movement, creating a paradoxical relationship.**

철학자 Tonja van den Ende는 “In Search of the Body in the Cave”에서, 사람의 여권 사진 이상으로 몸의 이미지가 더 깊게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하여 이 사진은 시민권과 대표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몸이 국가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권에 사진이 들어가기 전인 20세기 초까지는 사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정체성과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여권의 사진과 그 문서 자체는 개인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경계를 넘어 다니는 개인에게 여권과 그 사진은 신분 증명과 확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역설적으로, 여권은 국제적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의로 정해진 경계 내에서 개인의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